

# 19세기 말 일본 지식인 쓰네야 세이후쿠의 식민론

---

김성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인문지리 전공  
fruitrue@naver.com

---

- I. 머리말
  - II. 1890년대 전반의 해외식민론
  - III. 조선 체류와 『조선개회사』 저술
  - IV. 『조선개회사』의 조선식민론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6-KFR-1230006).

## I. 머리말

---

19세기 후반 일본의 지리적 시야가 확장되었다. 그 예로 일본 최초의 지리학 단체인 동경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의 잡지에서 기사의 대상지역이 북쪽으로 조선과 만주지역 및 연해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웃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남쪽으로 태평양과 아메리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sup>1</sup> 당시 일본정부가 해외이주 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지리학 단체로서 정부의 외연으로 기능한 동경지학협회는 세계적으로 부상한 식민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sup>2</sup> 그리고 1891년에는 아세아협회(亞細亞協會) 회원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가 『해외식민론(海外殖民論)』을 출판해 반향을 일으켰고<sup>3</sup>, 이후 식민협회(殖民協會)의 창립에 관여해 협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쓰네야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으로 건너갔고, 1899년까지 체류한 후 일본으로 귀국해 『조선개회사(朝鮮開化史)』를 출판했다.<sup>4</sup> 『조선개회사』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다룬 저서로 널리 알려졌다.<sup>5</sup> 이어서 그는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의 일원으로 조선에 출장해 전국 각지를 조사하였다. 당시 조선통(朝鮮通)으로 불리며 ‘쓰네야 하면 조선, 조선 하면 쓰네야를 떠올릴 정도로 조선 사정에 정통’하다고 평가되었다.<sup>6</sup> 특히 1935

- 
- 1 김성현, 「19세기 말 동경지학협회의 활동과 조선 지리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21), 106쪽.
  - 2 라우ヴェン스타인, 「地球上尙歐人の殖民に利用すべき土地」 전2회, 『東京地學協會報告』 13년 1-2호(1891).
  - 3 恒屋盛服, 『海外殖民論』(博聞社, 1891).  
恒屋盛服(1855~1909): 陸奥國 白河郡 출생.
  - 4 恒屋盛服, 『朝鮮開化史』(博文館, 1901).
  - 5 東京地學協會, 「新著紹介」, 『地學雜誌』 16卷10号(1904), p. 686.
  - 6 《萬朝報》, 1909년 7월(新聞集成明治編年史編纂會 編, 「朝鮮通恒屋盛服歿す」, 『新聞集成明治編年史』(林泉社, 1936), p. 127); 大植四郎 編, 『國民過去帳 明治之卷』(尚古房, 1935), p. 1120.

년 동아동문회와 흑룡회(黑龍會)가 각각 『대지회고록(對支回顧錄)』과 『동아 선각지사기전(東亞先覺志士記傳)』을 간행하면서, 쓰네야를 동아동문회의 일원으로 조선에서 활동한 인물로 위치 지었다.<sup>7</sup> 그 영향으로 20세기 후반 쓰네야는 주로 동아동문회 활동과 관련해 평가되는 한편,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지식인의 조선 인식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다뤄졌다.<sup>8</sup>

주목할 점은 저술 및 공문서를 살펴보면, 쓰네야는 1890년대 일본인의 식민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식민협회의 잡지 『식민협회보고(殖民協會報告)』(1899년 殖民時報로 개칭)를 통해 조선에 식민할 것을 강조했고,<sup>9</sup> 그에 기초해 『조선개회사』를 저술하였다. 하지만 식민론과 관련해 쓰네야는 1890년대 전반 식민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그가 멕시코 조사를 실행하고 식민협회 창립에 관여한 점이 강조되었다.<sup>10</sup> 1980~1990년대 이민사 연구에서는 그의 저서 『해외식민론』이 ‘출가(出稼)·이주 장려론’으로 평가되었다.<sup>11</sup> 한편 한국학계에서 쓰네야

- 
- 7 東亞同文會內對支功勞者傳記編贊會 編, 『對支回顧錄』 下卷(對支功勞者傳記編贊會, 1936), p. 519; 黑竜會 編, 『東亞先覺志士記傳』 下卷(黑竜會出版部, 1936), p. 324.
  - 8 阿部洋 외, 「東アジアの教育近代化に果たした日本人の役割: お雇い日本人教習と中国・朝鮮」, 『日本比較教育学会紀要』 1982卷8号(1982), pp. 51~58; 稲葉雄雄, 「京城学堂について: 旧韓末「日語学校」の一事例」, 『日本の教育史学』 29卷(1986), pp. 76~94; 千葉功, 「滿韓不可分論 滿韓交換論の形成と多角的同盟・協商網の模索」, 『史学雑誌』 105卷7号(1996), pp. 38~73; 조동걸, 「식민사학의 성립과 심화」, 『한민족독립운동사』 5권(국사편찬위원회, 1989), 320~353쪽; 최혜주, 「메이지(明治)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日鮮同祖論」,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2003), 161~203쪽.
  - 9 恒屋盛服, 「朝鮮半島殖民ノ必要」, 『殖民協會報告』 51호(1897), pp. 1~28; 恒屋盛服, 「韓国二於ケル日本人」, 『殖民時報』 71호(1899), pp. 32~46; 恒屋盛服, 「朝鮮殖民問題ノ性質」, 『殖民時報』 74호(1900), pp. 5~7.
  - 10 角山幸洋, 『榎本武揚とメキシコ殖民移住』(同文館出版, 1986); 児玉正昭, 『『殖民協會報告』解説・総目次・索引』(不二出版, 1987); 上野久, 『メキシコ榎本殖民: 榎本武揚の理想と現実』(中央公論社, 1994).
  - 11 阪田安雄 監修, 『日系移民資料集 北米編』 全18卷(日本図書センター, 1991); 神繁司, 『移民ビブリオグラフィー: 書誌でみる北米移民研究』(クロスカルチャー出版, 2011).

는 1890년대 후반 식민사학의 초기 상황을 밝히는 연구에 언급되는 데 그쳤으며, 근래 『식민협회보고』·『식민시보』를 통해 조선 이주를 주장한 점이 평가되고 있다.<sup>12</sup> 선행연구에서 쓰네야의 식민론은 식민협회, 조선 체류, 동아동문회 등과 연관해 단절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유럽 제국은 19세기 해외 저개발 지역으로 진출해 정치적 지배를 확대하고, 1870년대 식민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식민 및 식민지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르로이-블리외(Leroy-Beaulieu)는 국가가 이민과 자본 수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sup>13</sup>,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식민주의(colonialism)의 논리를 제시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세기 후반 colonization이 식민(殖民)으로 번역되었다. 식민은 해외 이주를 뜻하는 용어로서 이민과 혼용되었고, 식민에 내포된 식민지 경영의 측면은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못했다.<sup>14</sup> 1890년대에 이르러 서구의 식민론이 소개되었고, 특히 청일전쟁 이후 대만 통치를 위한 정책 연구가 전개되면서 대학 등 교육기관이 식민정책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식민의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영향으로 근대 일본의 식민 담론 연구는 주로 식민지 통치와 연관해 이루어졌다.<sup>15</sup>

이에 본고는 식민 담론에 관한 역사적, 동태적 관점에 기초해 1890년대 식민론의 전개를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팽창이라는 점을 고려해 쓰네야의 『해외식민론』과 『조선개회사』의 「지리」편을 중심으로 식민에

---

12 최혜주, 「일본 殖民協會의 식민 활동과 해외이주론」, 『송실사학』 30(2013), 173~213쪽.

13 西川潤, 「フランス第三共和制の植民地政策: ルロワ ポーリューとジュール・フェリイ」, 『社会 経済史学』 52卷 2号(1986), pp. 222~243.

14 日比嘉高, 「移民の想像力: 渡米言説と文学テキストのビジョン」, 『JunCture』 1(2010), pp. 48~63; 福島新吾, 「明治期における植民主義の形成」, 『思想』 511(1967), pp. 85~98.

15 淺田喬二, 『日本植民地研究史論』(未來社, 1990); 박양신,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동북아역사논총』 65(2019), 273~311쪽.

관한 서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19세기 말 일본의 식민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고찰하려 한다.

## II. 1890년대 전반의 해외식민론

쓰네야는 다이라(平: 현재 福島縣)에 설립된 영학교(英學校)에서 영어를 익히고 1873년 도쿄(東京)의 진문학사(進文學舍)에 진학했다. 진문학사는 독일어와 영어를 주로 가르치는 외국어 학원으로 상당히 유명했으며, 그는 영어에 능숙해 번역으로 생계를 꾸렸다. 한편 정한론 정국을 경험하며 동양에 관심을 가졌고, 1880년 흥아회(興亞會: 1883년 亞細亞協會로 개칭) 창립에 참가해 중국어를 배우고 사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동양의 국세(國勢)에 관심을 두고 태평양 무역에 관해 조사했다.<sup>16</sup>

그는 자유민권운동, 사족 반란과 서남전쟁 등을 겪으며 비분강개하여 격론을 하고 몇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1882년 입헌개진당(立憲開進黨)에 가입하고, 1885년 정론(政論) 신문으로 유명한 조야신문사(朝野新聞社)에 들어가 편집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신문사를 나와, 1887년 정부 관리 임용기구인 문관시험국(文官試驗局)의 속관(屬官)에 임명되었다. 1889년에는 입헌개진당 소속으로 후쿠시마현(福島縣) 제3구 중의원의원 후보가 되었는데, 당선되지 못했다. 1870~1880년대 이력에 따르면 쓰네야는 번벌(藩閥) 중심의 정부에 비판적이었고, 일본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도호쿠(東北) 지방에 기반을 두며 도쿄 및 대도시 중심의 일본사회 구조를 비판하

16 榑時敏 編, 『福島県名士列伝: 一名・衆議院議員候補者略伝 前編』(福島活版舎, 1890), pp. 5~11.

였다. 그를 배경으로 1891년 『해외식민론』이 출간되었다.

『해외식민론』은 전편과 후편으로 구성된다. 전편은 7장으로 그 내용은 총론, 일본인 종족, 인구와 면적 간 비율, 인구 증가율, 경제, 식민정책, 식민지 선택 등이다. 쓰네야는 〈총론〉에서 해외식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식민이 없다면 일본의 국운(國運)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식민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식민정책〉에서는 식민정책의 수립을 주장하며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식민지 선택〉에서 농학·의학·지리학 전공자를 각지로 보내 일본인이 생활하기에 적당한지를 조사해야 하며, 식민지의 주요 조건으로 지리적 편리로서 교통, 기후, 지미(地味) 즉 토질, 주민, 정치체제 등을 중시하는 한편 일본 해군이 입항할 수 있는 곳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쓰네야는 식민정책에서 해군의 역할을 거듭 언급하며, ‘해군이 식민의 보모(保姆)이니 보모 없이 식민이 홀로 자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요코하마(橫濱)를 기점으로 일본 해군이 입항할 수 있는 범위를 타원형으로 그리며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를 거쳐 자와, 보르네오,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후편에서 식민 대상지역으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濠太利細亞, 馬來細亞, 波利尼細亞<sup>17</sup> 각각의 지리·기후, 인구·인종, 재정·무역, 교통·산업 등에 관해 설명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를 대상으로 ‘식민에 필요한’ 사항들을 해설했다.

쓰네야는 식민을 크게 침략적 식민과 우의적(友誼的) 식민으로 구분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는 유럽이 수백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역시 어떤 나라에 대해 침략적 식민을 할

---

17 濠太利細亞·馬來細亞·波利尼細亞는 Australasia·Malaysia·Polynesia의 번역어이다. 일반적으로 濠太利細亞(Australasia)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포함된다. 參謀本部編纂課 譯輯, 『各国貨幣度量訳字例』(參謀本部, 1891).

수 있다. 후자는 근래 주장되는 것으로 일본이 멕시코 등에 대해 실시하려는 것이다. 일본인이 해외 국가로 이주해 그 나라의 공민(公民)이 되고 그곳의 풍속과 습관에 따르며, 그 나라의 번영을 도모하고 독립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공익(公益)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유능한 농민과 상인 그리고 직공이 이주해야 한다. 그것은 호놀룰루, 뉴칼레도니아, 홍콩 등의 이주 노동자와 다르다.<sup>18</sup>

1885년부터 전개된 일본인의 하와이 이민은 예상보다 낮은 임금과 무엇보다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불만이 많았다. 이에 쓰네야는 계약노동에 기초한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서구 제국의 해외팽창을 모델로 일본인의 해외 식민을 주장함으로써, 도호쿠로 대표되는 일본 내 후진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해외시장을 통해 국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의도와 일맥상통했다. 그를 반영 하듯 『해외식민론』에는 귀족원의원 후쿠바 비세이(福羽美靜)의 서문과 함께 외무대신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의 제사(題辭)가 실렸다.

에노모토는 1891년 외무대신에 취임해 이민과(移民課)를 신설하고, 뉴기니 섬과 말레이 반도 등에 외무성 관리와 이민 관계자를 파견해 식민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해외 식민에 적극적이였다. 한편 당시 동경지학협회 통신원(通信員)이던 프랑스인 살타렐(Saltarel)이 초대 주일 멕시코영사 요코하마에 도착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영사 진다 스테미(珍田捨巳)의 보고에 따르면 멕시코정부는 외자(外資)와 이민을 원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진다에게 멕시코 무역에 관해 조사하도록 하고, 미국 주재 특명전권공사 다테노 고조(建野郷三)에게도 멕시코 식민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외무성은 해외 식민과 관련해 멕시코에 관심을 집중하고, 1892년

18 恒屋盛服, 「墨西哥國探檢話 第一」, 『東京地學協會報告』 14년 10호(1893).

이주지와 통상무역을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로 조사단을 파견했다. 쓰네야도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동년 3월 조사단은 일본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 서부 지방을 여행했다. 일본과 멕시코 양국 간 외교의 일환으로 멕시코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농장, 광산, 산업시설 등을 조사하고 일본인이주를 통한 경제 진출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폈다. 10월 멕시코시티에서 대통령을 알현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일본으로 귀국하고, 이듬해 총 251일간 여행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sup>19</sup> 그리고 보고서 제출에 앞서 쓰네야는 동경지학협회 예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멕시코 탐검(探檢)에 대해 연설하고, 그 곳에서 가져온 도구와 목재 표본을 전시하기도 했다.<sup>20</sup>

쓰네야는 『해외식민론』을 통해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경제·사회 정책으로 해외식민을 제안하였다. 한편 외무성의 조사단으로 멕시코를 탐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본정부의 식민정책을 보조하며, 동경지학협회 예회의 연설 등을 통해 식민의 실행을 촉진하려 했다.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의 식민정책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다. 그는 『해외식민론』의 범례에 ‘장래 식민 관련 조합을 만들어 저서를 강구하고 보유(補遺)하려 한다고 적은 대로, 1893년에는 에노모토가 외무대신을 사임하고 식민협회를 설립하는데 참여했다. 그리고 멕시코 탐검과 식민협회 창립을 통해 식민 사업이 주목을 받자, 이듬해 쓰네야는 식민협회 창립원(創立員)으로서 『해외식민론』을 다시 출판했다. 전편의 오류를 정정하고 자구를 수정했으며, 멕시코와 관련해 실제 견문한 바를 참작해 후편을 보정했다.

---

19 「森尾茂助他三名(恒屋盛服、榎本龍吉、高野周省)墨国視察關係 自明治二十五年三月」(아시아역사 자료센터/B16080718200).

20 恒屋盛服, 「メキシコ國烈翁鐵山紀行」, 『동경지학협회보고』 14년 8·9호(1893); 恒屋盛服, 「墨西哥國探檢話」 전2회, 『동경지학협회보고』 14년 10·11호(1893).



1890년대 전반 일본의 식민론은, 세계정세에 대응해 국외로 시장을 확장하고 잉여 인구를 내보내 해외팽창을 실현하려는 측면이 강하였다. 식민의 대상지역은 주로 일본열도에서 동남·서남향으로 태평양 항로를 통해 이어지는 곳이었다. 그것은 청일전쟁 이후에도 일본에서 해외웅비(海外雄飛)라는 표현과 함께 팽창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민론의 패턴으로 활용되었다.<sup>21</sup> 그 예로 종합잡지 『태양(太陽)』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한 쓰보야 젠시로(坪谷善四郎)는 정부도 국민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22</sup>

“국민의 팽창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복 팽창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팽창이다. [...] 국민적 팽창은 군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영웅이 출현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국민의 힘으로 점차 국외로 팽창하는 것이다. 그 중 단기의 경우를 출가(出稼)라고 하고, 장기의 경우를 이주하고 한다. ... 일본 국민은 세계적으로 가장 번식력이 왕성하다. 지난 십년 간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50만 정도 증강한다. [...] 증가하는 인구를 (일본) 국내에 헛되이 살게 하면, 가까운 시일 내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동포가 필연적으로 점차 국외로 팽창해야 할 이유이다.”

쓰보야는 군사 진출의 정복 팽창이 아닌 평화적인 국민적 팽창 즉 이민을 주장하며, 왕성한 번식력이라는 일본인의 생물적 우위성을 근거로 이민에 의한 국민의 팽창을 강조했다. 번식력이 일본 국내에 인구 과잉을 불러일으키므로 해외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식민론은 국민 중 일부를 방기하는 기민(棄民)의 논리를 반영하는 한편으로 국민의 시선을 국외로 향하게 하고 해외 팽창의 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21 日比嘉高, 앞의 논문, pp. 48~63.

22 坪谷善四郎, 「國民的膨脹 移民」, 『太陽』 7-14(1901), pp. 64~66.

### Ⅲ. 조선 체류와 『조선개화사』 저술

쓰네야는 도호쿠 지방에 기반을 두고 일본인의 해외 식민을 주장하는 한편 일찍부터 홍아회(아시아협회) 회원으로 중국과 조선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와 관련해 일본으로 망명한 한객(韓客) 박영효와 친분을 맺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자'는 숙약(宿約)을 했다. 1894년 동학운동이 일어나자, 동년 8월 박영효 일행과 함께 도쿄를 떠나 한성으로 향했고 남문 밖 공덕리에 위치한 흥선대원군의 별업(別業) 아소정(我笑亭)을 방문했다. 이후 쓰네야는 조선에 체류하면서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권고에 따라 조선정부의 서정(庶政) 개혁에 관여하고, 내각보좌관(內閣補佐官)으로서 기록·편찬·관보(官報) 사무를 감독했다. 이듬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일본 세력의 확장이 제한되자, 그는 사직 후 한성 북부 소안동(小安洞)의 금릉위궁(錦陵尉宮) 즉 박영효의 집에 머물며 반도(半島)의 성질에 대해 저술하기로 했다. 1898년 봄부터 이듬해 5월에 걸쳐 원고를 작성하고 『조선개화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서문에 저술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sup>23</sup>

“조선을 관찰하니 첫째, 도부(都府)가 영락하고 촌읍(村邑)이 쇠잔하며, 강기(綱紀)가 이폐(弛廢)하고 풍속이 패괴(敗壞)해 반도의 풍물(風物)은 쇠망의 모습 자체다. 둘째, 인심을 살펴보면 시의(猜疑)하고 권사(權詐)하여 상하 모두가 기망(欺罔)하는 데 능하다. 적개(敵愾) 즉 의기가 없고 늘 타인에게 의지한다. 안일과 사리를 위하고 공공(公共)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 그 결과 민심은 날로 제각기 흩어지고 진부하다. 이전 신라의 흥릉과 광개토왕의 패업(霸業)을 찾을

23 恒屋盛服, 앞의 책(1901), 自敘.

수 없으니, 나그네가 맥수(麥秀) 즉 망국을 한탄할 지경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반도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종족들이 이주와 식민을 하고 생존을 다투며 자연적으로 융합하니, 그것은 외부 세력이 끊임없이 반도를 압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찍이 한 무제의 경략(經略)에서 근래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넷째, 반도는 또다시 수년 내 팔역(八域) 전국에 일대 활극(活劇)이 전개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천손족(天孫族) 일본과 슬라브족 러시아가 전투를 하거나, 아전인종(雅典人種) 프랑스와 앵글로색슨 영국이 쟁탈할 수 있다. 반도 인민이 진보하고 발달하거나 유망(流亡)하고 절멸할 수도 있다. 이제 저자는 반도의 지리, 인종, 문화, 외교의 사적을 통해 반도의 장래를 살펴보려 한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정부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쓰네야는 시기(時機)를 기다리며 조선에 체류했다. 그는 일본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떨치고 조선을 지배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을 두고 러시아를 비롯해 서구 제국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며 조선의 앞날을 파악하려 했다. 그런데 그는 지리·인종·문화·외교 제 측면에서 조선의 상황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쓰네야는 조선을 지리적으로 반도인 점을 명시하였다. 조선=반도를 강조한 지리학자 가네다 나라타로(金田權太郎)에 따르면 인문지리의 관점에서 인종 분배, 인간 교통, 인구 분포, 인문 발달 등은 자연과 밀접히 관련된다. 해양·호소(湖沼), 산천·원야(原野), 거리, 도서, 반도, 해안, 계곡, 기후 등의 지리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리 요소는 인간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교통을 통해 인종 혼교(混交)와 개화(開化) 또는 인문 발달(人文發達)이 이루어졌다. 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륙과 도서 중간에 위치해 교통을 매개하지만, 지협(地峽)의 형상에 따라 대륙과 관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조선은 산맥으로 인해 대륙과 격리된 반도이기에 오랫동안 쇄국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문명을 일본에 전파했다. 역사적으로

인문이 개화하지 않으면 반도는 교통이 불편해 왕래를 방해한 반면, 인문이 진보하면 반도는 교통을 매개해 개화의 전파를 촉진하였다.<sup>24</sup>

가네다는 지리 환경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하고 다양한 지리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간사회에 작용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인종과 인문 개화 등이 지리 요소의 영향을 좌우하는 예를 제시했다. 그것은 19세기 국제질서의 현실을 긍정하고 개화와 진보를 옹호하는 논리였다. 가네다의 인문지리는 일견 지리결정론으로 보인다. 지리 환경에 내재한 천연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그에 기초한 국가·사회·민족의 성격을 근본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질서를 인종의 우열, 개화와 진보 정도로써 설명하는 정치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가네다는 자의적 지리 해석을 통해 도서(島嶼) 일본이 반도 조선과 대륙 중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 했다. 조선=반도 주장은, 조선을 반도라는 지리 환경에 영향을 받는 나라로 한정하는 동시에, 19세기 정치논리에 기초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반도의 성격을 조선에 덧씌운다. 조선을 한때 중국 문명을 일본열도에 전하는 매개이지만, 오랫동안 지리 환경에 영향을 받아 쇠국을 유지하면서 개화하지 못한 나라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선사회 전체가 이미 쇠락해 조선인 또한 비천하고 의타적이라고 설명하며, 조선을 지리·사회·역사계 측면에서 타율적인 사회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쓰네야는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전개된 종족의 변천을 언급하며, 일본 종족의 식민과 기타 종족의 이주를 구분했다. 그리고 조·일 관계의 역사로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정토, 임나일본부 설치, 7세기 일본군의 구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토벌, 19세기 일본의 강박적(強迫的) 개국,

---

24 金田樞太郎, 「人事地理學考」, 『지학잡지』 7집 82권(1895), pp. 521~525; 金田樞太郎, 「人事地理學考(承前)」, 『지학잡지』 7집 83권(1896), pp. 592~595; 金田樞太郎, 「人事地理學考(第八十三卷の續)」, 『지학잡지』 8집 86권(1896), pp. 72~76.

청일전쟁의 전개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일찍이 조선(한반도)에 이주해 정착하고 번영함으로써, 일본의 국익을 도모한 식민의 역사를 서술했다. 그에 기초해 조선과 일본의 역사적 연관을 강조하고, 일본에 의한 조선 지배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조선은 지리·인종·문화·역사에 내재한 본연의 성질로 인해 다시 일본을 포함한 제국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암흑의 반도’ 앞날에 이웃하는 신흥국 일본만이 여망(餘望)이라고 했다. 조선사회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아왔다고 강조하며 일본을 동방에서, 북극권선(北極圈線) 아래 즉 북반구에서 유일하게 희망찬 나라로 설정한 것이다. 쓰네야는 『조선개회사』를 통해 조선의 지리·인종·문화·역사 제 측면을 서술하며 장래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전제로 조선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개회사』는 지리·인종·문화·외교 4편으로 「지리」 12장 66절, 「인종」 9장 68절, 「문화」 15장 120절, 「외교」 13장 84절로 구성된다. 서문에 ‘인용한 서책이 호한(浩漣) 잡박(雜駁)하다고 쓰여 있는데, 참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다만 본문에 인용된 서적에 따르면, 쓰네야는 「지리」편에서 『팔역지(八域誌)』 등 조선 지지(地誌)를 참고했다. 이때 『팔역지』는 『택리지(擇里志)』의 번역본 『조선팔역지(朝鮮八域誌)』로 추정된다.<sup>25</sup> 『조선개회사』와 『조선팔역지』를 비교하면 도별(道別) 서술의 순서가 동일하고, 공통의 지명 및 내용이 있다. 주요 지방과 한성 간 거리가 기술된 점 역시 조선 후기 지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쓰네야는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의 『조선왕국(朝鮮王國)』도 종종 인용했다.<sup>26</sup> 『조선왕국』은 총론·지리부·사회부·역사부·근세사 등 5장으로 구성되며, 일본에서 조선의 지리와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25 靑華山人(저), 近藤真鋤(역), 『朝鮮八域誌』(日就社, 1881).

26 菊池謙讓, 『朝鮮王國』(民友社, 1896).

무엇보다 「참고서목록(參考書目錄)」에서 총 86종의 도서를 밝히고 있다. 그를 통해 1890년대 일본인이 조선에 관해 저술할 때 참고한 자료의 대강을 알 수 있다. 참고서목록의 도서는 대부분 조선의 역사·지리·사회 등에 관한 것으로 일부는 아시아 전반을 다루고 있다.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도서 10종을 제외하면 저자는 일본인 42명, 조선인 23명, 미국인 4명, 영국인 4명, 중국인 2명, 프랑스인 1명 등이다.<sup>27</sup> 일본인 저술의 도서는 대부분 19세기 후반 작성된 것으로 참모본부를 비롯해 정부 간행의 서적과 보고, 동방협회·동경지학협회·사학회 등의 잡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인 저술의 도서는 19세기 이전 작성된 것으로 관찬의 역사서·법전·문헌, 사찬의 기록 및 문집 등이다. 사찬 중에 역사서와 대외관계 관련 기록이 다수 포함된다. 1890년대 일본인은 조선에 관해 저술할 때 일차적으로 일본 도서를 참고하고, 특정 사실의 역사적 근거를 설명하는 데 조선의 자료를 활용했을 것이다.

한편 쓰네야는 1894년 이래 5년간 조선에 체류하며 답사하거나 청취한 내용도 상당했으리라 추정된다. 그 예로 『조선개회사』 중 충청도 가흥(可興)에 대해 한강 상류의 요진(要津)으로, 청일전쟁 당시 경상로(慶尙路)의 일본군을 한성으로 수송하는 데 이용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894년 8월 일본군 제12연대 제2대대 제6중대의 보호를 받으며 한강을 내려가는데, 당시 군대를 실은 배 12척이 일렬로 한강을 내려가는 모습에 뜻하지 않게 ‘장대하다’고 외쳤다고 회고했다. 그것은 마치 중군기자와 같이, 쓰네야가 조선 각지를 파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조선개회사』 「지리」 편 12장을 통해 조선 지리에 대한 서술을 분석하고, 식민론의 내용을 살펴본다.

27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도서는 다음과 같다. 『朝鮮國志』, 『Korea』, 『Korean repository』, 『圖滿江境界談 判書』, 『朝鮮史』, 『朝鮮』, 『對韓政策』, 『ロシア高麗史』, 『姓氏錄』, 『考閱除抄』.

#### IV. 『조선개회사』의 조선식민론

##### 1. 조선 지리에 대한 관점

「지리」 1장에서 쓰네야는 조선의 천연지리(天然地理) 즉 자연지리와 관련해 위치·면적, 팔도 구분, 지세, 지질, 산맥, 하천, 원야, 항만, 조석, 기후·질병 등 10개 항목을 서술하였다. 항목별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조선은 좁고 긴 반도와 섬으로 구성되고,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가자미와 닮아서 접역(鰈域)이라고 부른다. 반도는 지형적으로 백두산에서 남하한 산척(山脊)과 그 사이에 흐르는 강하(江河)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 팔도(八道)로 구획된다. 지세의 측면에서 동면이 급경사인 반면 서남면은 경사가 아주 완만하다. 그래서 동면에 대하(大河)·평야·항만·도서군이 적으며 서남면에 크고 긴 강, 넓고 윤택한 원야, 깊고 너른 항만, 아름다운 도서가 많다. 또 해안선이 길다. 그리고 지질은 분명하지 않지만 지하에 많은 귀금속과 각종 광물이 있다. 토성(土性)이 좋아 농작물에 적합하다. 화산 관련 지형이 있는데 활화산이 없고 온천도 적다.<sup>28</sup> 쓰네야는 첫머리에 조선을 지리적으로 반도인 점을 강조하면서, 반도의 형태는 조선 자료에 근거해 접역이라고 쓰고 있다. 지세와 관련해 서남면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천연적으로 하천과 평야 그리고 항만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질에서도 지하 광물이 많고 농작물이 잘 자라며, 과수와 백곡(百穀)이 비료 없이 성숙하는 것을 보면 토질(土質)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조선을 대상으로 천연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중시한 것이다.

쓰네야는 산맥 항목에 “백두산은 반도의 수뇌(首腦)에 해당하고 남쪽으로

28 恒屋盛服, 앞의 책(1901), pp. 1~2.

대간(大幹)이 태백산에 이른다. 그 중에 낭림산, 검산, 철령, 금강산, 설령(雪嶺), 오대산, 두타산 등이 있다. 낭림산에서 평안도의 산들이 시작되고, 함경도 고원-문천 간에서 뺀 서쪽 지맥에 의해 황해도와 개성의 산들이 만들어진다. 철령에서 철원과 한성의 산들이 뺀어 나온다. 태백산에서 뺀 속리산과 덕유산에서 주로 경기와 충청의 산들이 시작된다. 그 중 덕유산의 지맥이 마이산-추월산-월출산-탐라산(耽羅山)으로 이어진다.” 고 기술했다.<sup>29</sup> 그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남하하는 대간과 그에서 나뉘는 지맥 또는 분맥(分脈)으로 팔도의 산들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산맥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으며, 덕유산의 지맥이 탐라산 즉 한라산으로 이어진다고 쓰고 있다. 그것은 산줄기가 아닌 산맥의 개념으로 조선의 지형을 설명하려 하지만, 조선을 대상으로 지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맥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한다.

하천에 대해 쓰네야는 대동강·압록강·두만강·낙동강·한강이 규모가 크고 오대강(五大江)으로 통칭되며 전라도 섬강·영산강, 충청도 진강, 황해도 예성강, 평안도 청천강 등도 규모가 크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하천 규모에 대해 ‘400-500석 적재의 선박이 20-30해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강에 대해 내포(內浦)의 평야를 관류하고 양쪽 하안에 부유한 성읍과 진·포가 늘어서 있으며, 하구에 군산포가 있어서 ‘산업과 상로(商路)의 면에서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sup>30</sup> 1870~1880년대 일본정부가 진강 일대를 조사한 것에 기초해 진강을 중시했을 것이다.<sup>31</sup>

그리고 원야 항목에서 쓰네야는 “반도는 대부분 산악으로 그 사이로

29 위의 책, pp. 4~5.

30 위의 책, pp. 5~6.

31 일례로 1877년 이래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일행은 개항장 선정을 위해 조선 해안을 조사하였고 특히 진강 일대를 중시하였다.



강이 굴곡하고 환류한다. 따라서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이 있지만, 광원(曠原)이라 할 만한 넓은 들이 없다. 소규모의 원야가 평안도 평양, 함경도 함흥, 경상도 상주·대구·진주, 전라도 구례·나주·전주, 충청도 내포·유성·청주, 황해도 재령 등에 있다. 규모가 작지만 생산력이 좋다.”고 기술했다. 그는 지형적으로 산지가 많고 하천이 곡류함으로써 대규모 평지가 형성되지 않지만 평지의 생산력이 높으며,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데 일본에서 비료를 사용하는 만큼 잘 자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조선은 농국(農國) 즉 농업국으로 농산물 중심으로 무역을 유지하며, 원야가 없다면 ‘조선의 국맥(國脈)이 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sup>32</sup> 사실 원야는 대체로 풀과 관목이 자라는 평지를 가리키며 미개발 상태를 의미하므로, 용어 자체에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다. 그와 비교해 평야는 지표에 기복이 적고 비교적 평탄한 지형, 또는 비교적 넓고 평탄한 토지를 뜻한다. 평야가 지형의 상태에 중점을 둔 용어라면, 원야는 개발의 가능성이라는 경제 가치를 내포한 것이다. 따라서 쓰네야가 조선의 지형은 물론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쓰네야는 11개 항만을 언급하고, 그 중 마산포를 완전무결하고 ‘세계 교통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대동강·예성강·한강·아산만·진강·영산강·섬강 등 주요 하구의 조수 간만의 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sup>33</sup> 마지막으로 기후·질병 항목에서 “겨울에 추위가 혹독해 곤충 알이 얼어 죽는다. 여름에는 더위가 심하지만 식물이 무성해 오히려 경작에 유리하다. 그리고 겨울부터 봄까지 우량이 많지 않고 공기가 건조해 인체에 적당하니, 간헐열(間歇熱)을 제외하고 풍토병이 없다. 전염병으로 두창과 우역(牛疫)이 가장 심각하다. 호열자 즉 콜레라는 겨울에 약화하고

32 恒屋盛服, 앞의 책(1901), pp. 7~8.

33 위의 책, pp. 9~10.

적리(赤痢)와 장질부사(腸室扶斯) 등은 심하지 않다.”고 서술했다.<sup>34</sup> 기후와 연관해 풍토병과 전염병이 서술된 배경에는 그가 식민정책에 관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조선의 자연지리에 관해 쓰내야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10개 항목 중 8개 항목 즉 지세와 지질, 하천과 원야, 항만과 조수, 기후와 질병 등을 경제 이익과 연관해 평가했다. 조선을 일본의 개발 대상지로 설정한 것이다.

「지리」 2장부터 9장에 걸쳐 쓰내야는 도별 개요와 주요 지방에 대해 서술했다. 먼저 도별 개요에서 팔도의 위치와 경계, 각 도내 지역 구분과 지세·산업, 각도의 역사와 현황 등을 기술했다. 지리적 성격과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미곡 등 농산은 물론 수산과 광물 생산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5</sup>

- (a) 평안도는 경제적으로 광물이 생산되고 토지도 척박하지 않아 다른 곳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이 호사하다.
- (b) 함경도의 경우 대체로 함흥 이북은 산천이 험하고 풍속이 경한(勁悍)하며, 춥고 땅이 척박하다. 하지만 산에 담비와 인삼이 많고, 바다에는 어족(魚族)이 풍부하다. 명태어는 함경도의 명산으로, 생산량이 거대하다. 근래 일본 어민은 출어(出漁)가 점점 늘어나 원산 근해에서 멀리 두만강 하구까지 가는데, 특히 해삼을 잡아 크게 이익을 얻는다. 러시아인도 포경 사업으로 마양도(馬養島) 인근에서 포획한다. 광물 역시 금·은·동·철·연(鉛)·탄 등이 생산된다. 은장(隱藏) 즉 매장량은 평안도의 4-5배일 것이다.
- (c) 강원도는 화전과 한전(旱田)이 많고 논이 적다. 영서 지방은 금·은 등

34 위의 책, pp. 10~11.

35 위의 책, pp. 11~12, pp. 21~22, pp. 30~31, pp. 35~36, pp. 52~53, pp. 69~70, pp. 81~82, pp. 102~103.

광물이 많고 인삼과 목재 산지이다.

(d) 경상도는 좌도에 비해 우도가 땅이 비옥하다. 일본에 가깝고 오래전 일본의 식민지이었던 적도 있어 일본과 관계 깊다.

(e) 전라도는 기후가 온난하고 토지가 기름지며, 서남쪽이 바다와 접해있다.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차별을 받았지만, 지세와 부(富)의 측면에서 중요하니 전라·충청도의 비중이 반도 전체에 필적한다. 특히 금강 연안이 부유하다.

(f) 충청도는 토지가 기름져 농산물이 풍부하고, 진강·아산을 통해 내외(內外)의 물자가 유통되는 한편 달천(達川)·한강으로 한양과 이어진다.

(g) 경기도는 팔도의 중앙에 위치한다. 국내외 물산이 집중되는 한편 간접적으로 분배된다. 사회 변동의 본원으로 정치의 중심이며 문명(文明)을 중개하는 곳이다.

(h) 황해도는 산업 측면에서 황주와 재령 그리고 예성강 연안이 중요하다.

쓰네야는 산업별 자원을 이해하고 향후 일본의 개발 이익을 파악하려 했다. 그와 관련해 조선의 경제를 미곡 중심으로 파악한 조선의 기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 예로 평안도에 대해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풍요롭다고 서술하면서 “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평안도에서 고구려가 번성했지만, 이후 외병(外兵)이 자주 침입해 백성들이 이주하고 토지가 황폐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평안도의 부(富)는 무엇보다 광물에서 비롯된다. 마을마다 금이 생산되고, 모든 산에 어느 정도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토지도 결코 척박하지 않아 콩과 수수가 잘 자라고 품질도 양호하다. 다른 도와 비교해 금 생산으로 평양감사의 수입이 많고, 물산이 풍부해 사람들의 생활이 호사하다. 따라서 조선의 기사는 미곡을 중심으로 이해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쓰네야는 도내 주요 지방에 관한 서술에서 행정거점과 함께

주로 수륙 교통의 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인의 진출과 관련해 여러 차례 서술된 인천항, 강화도, 목포 등을 제외하고 함경도 성진항과 웅기만, 경상도 구포·하단포(下端浦), 전라도 진도, 충청도 가흥, 경기도 남양과 오강(五江), 황해도 장연과 통북대로(通北大路) 등을 중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6</sup>

(i) 함경도에서 성진항은 1894년 이전 어촌에 불과했지만, 러시아 선박이 기항하면서 북관(北關)의 주요 지방이 되었다. 그리고 웅기만은 조산만(造山灣)에 위치한 양항으로 특히 浦潮斯德 즉 블라디보스토크와 교통이 편리하고 매년 외국선 7-8척 기항한다. 전년도 1899년 러시아가 경흥을 대신해 웅기만을 요구했다. 만약 웅기만을 개발해 통상항(通商港)으로 한다면 경흥과 경원을 통해 훈춘(琿春)과 무역할 수 있다.

(j) 경상도 구포는 부산 개항 당시 한촌이었지만, 부산과 낙동강 수운을 증계하면서 번성했다. 전년에 부산 일본거류지의 상민(商民)이 구덕(九德)을 지나는 도로(3리)를 축조해 이제 구포에서 천여 명의 상인이 활동한다.

(k) 전라도 진도는 해남과 더불어 수군 방어에 중요하다. 조선의 지지는 임진년 전쟁 당시 이순신의 훈공을 서술하고, 남해와 진도 간 암초와 급류로 배가 전복되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과장이지만, 실제 진도는 부산-목포 간 항로에서 중요하다. 진도를 우회하면 해협을 직항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l) 충청도 가흥은 충주에서 북쪽 2리에 위치하고, 한강 상류의 요진이다. 조선정부가 창고를 설치하고 경상 7읍과 충청 7읍의 전조를 수납했다. 그래서 임진년 전쟁 당시 일본이 조항부(漕餉部)<sup>37</sup>를 두고 경상도 낙동과

36 위의 책, pp. 26~30, p. 49, pp. 63~64, p. 80, pp. 89~90, pp. 69~70, pp. 81~82, p. 104, pp. 108~109.

37 원문 漕餉部를 漕餉部로 수정한다.

교통했다. 청일전쟁에도 일본 전신대(電信隊)를 두는 한편 경상로의 군대를 한성으로 수송하기 위해 한선(韓船) 80척을 두었다.

(㉓) 경기도 남양은 1882년 이래 청 함대가 정박한다. 그리고 오강은 麤島(뚝섬), 노량(노들), 용산, 마포(삼개), 양화진을 가리킨다.

(㉔) 황해도 장연은 해주에서 서쪽 15리에 위치한다. 장산곶 일대 형성된 만에 남창포(南昌浦)와 태탄포(苔灘浦) 등이 있어 선박이 빈번히 출입하고, 그 곳에서 4일이면 인천에 도착한다. 그리고 통북대로는 개성에서 평양에 이르는 직로(直路)에 해당한다. 김천, 평산, 서흥, 봉산 등에 역참이 설치되고 그 중 평산이 가장 번화하다.

쓰네야는 도별로 수륙 교통의 요지를 파악하고 특히 유통과 경제 이점의 측면을 상술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 등이 진출해 개발되거나 주목받은 지점을 강조하고 평안도 은산금광과 운산금광, 경상도 금성(金城) 등 광산 개발도 함께 기술했다. 한편 지명 중 경기도 오강은 현재 한강 중 다섯 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1790년대 기록에 주로 한강·용산강·마포강·현호강(玄湖江)·서강 등이 언급되었다. 사실 조선시대 한양을 관통하는 강 전체는 경강이라 불리며 18세기 이전 서강·용산강·한강 등으로 구분되고, 19세기 전반에는 12강이라 할 정도로 세분해 지칭되었다.<sup>38</sup> 쓰네야는 오랫동안 조선에 체류해 한강의 실태를 파악했기에 한강을 오강이라고 기술했을 것이다. 그리고 황해도 통북대로의 경우, 조선시대 한성을 중심으로 전국을 잇는 간선도로 9대로 중 서북방향으로 개경과 평양을 지나 의주로 향하는 의주로에 속한다. 의주로가 통북대로라고 불린 예는 매우 드물지만<sup>39</sup>, 당시

38 유분예(저), 장지연(역해), 『한경지략: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풍속』, 아카넷(2020), 454쪽.

39 李有駿, 『夢遊燕行錄 上』 戊申 十月 二十八日. “晚後始發, 行十里, 至洞仙嶺. 嶺即古之崑嶺, 爲通北大路. 自麗末, 長養樹木, 以塞之.”

한성-평양 간 도로가 '북쪽으로 통하는 대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내 주요 지방에 대한 서술에는 경상·전라·충청도를 중심으로 조·일 양국의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구체적으로 경상도 영일만·마산포·거제도·낙동, 전라도 제주도와 남원·운봉, 충청도 옥천·추풍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0</sup>

- (o) 영일만은 경주에서 동북쪽 1리에 위치하고 경주의 문호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아진포(阿珍浦)로 추정된다. 일찍이 신라와 일본이 교통할 때 영일만을 출발해 마쓰시마(松嶋), 오키노시마(隱岐嶋)를 거쳐 이즈모(出雲)의 마쓰에만(松江灣)에 도착했을 것이다.
- (p) 마산포는 창원에서 남서쪽 2리에 위치한다. 고려시대 합포(合浦)라고 불리었다. 일본과 교통하는 유일한 기점으로 원구(元寇)의 함대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다. 왜구도 마산포를 근거지로 해 조선 팔도의 항만을 침범했다.
- (q) 거제도는 마산포와 관련해 군사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거제도 내 양항이 많고, 그 중 죽림포(竹林浦)는 군항으로 적합하다. 일본이 동양에서 해상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거제도를 망각해서 안 된다. 역사적으로 왜구가 거제를 근거지로 삼고, 임진년 전쟁 당시 조·일 양국의 수군이 영등포와 장수포(長水浦) 등을 뺏기 위해 싸웠다. 만약 청일전쟁에서 청과 일본의 해군력이 필적했다면, 거제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다.
- (r) 낙동은 낙동진(洛東津)으로 낙동강 최상류의 요진이다. 그 곳에서 육로로 조령을 넘어 충청도 가흥에 이르고 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한성에 도착한다. 그래서 임진년 전쟁 당시 낙동진이 양도(糧道)의 기점이 되었고, 청일전쟁에서도 병참선(兵站線)이 부산-낙동-가흥으로 이어졌다.
- (s) 제주도는 반도의 섬 중 가장 크다. 규슈와 가까워 일찍부터 일본과 교통이 빈번했다. 근래 일본 어민이 제주 근해에서 전복·해삼·미역 등을

---

40 恒屋盛服, 앞의 책(1901), pp. 38, p. 40, p. 44, p. 47, pp. 61~62, p. 78.

많이 채취해 제주 도민과 분의(紛議)를 일으킨다. 설화에 따르면 세 명의 신인(神人)이 있었는데 일본 왕이 왕녀 세 명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의 종자 등을 보내 함께 살게 했다. 그들이 탐라국의 조상이 되었다. 탐라는 사이메이조(齊明朝) 7년 일본에 조공을 하고, 덴무조(天武朝) 신속(臣屬)했다. (1) 추풍령은 경상과 충청이 교통하는 곳이다. 일대는 일찍이 임나의 판도에 속하고, 당시 임나부가 신라와 백제를 제압하고 번성했다.

쓰네야는 도내 주요 지방에 대한 서술에서 수륙 교통의 요지를 중시하고 유통과 경제 이점을 강조하는 한편 고대부터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일 양국 관계와 연관된 곳을 상술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전제로 조선의 지리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조·일 관계의 역사적 '배경지(背景地)'를 선정해 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 2. 조선 영역에 관한 관점

쓰네야는 「지리」 제10-11장에서 <조선>의 판도(版圖) 연혁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단 서술 중에 조선은 왕조명으로, 때로는 고대 이래 한반도에서 흥망한 제국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조선으로, 후자를 <조선>으로 구분한다. 먼저 판도 연혁의 서술에 앞서 쓰네야는 <조선>의 역사를 8시기로 나누었다. 즉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삼한, 한사군·삼한, 삼국시대·낙랑·가라·임나, 신라·발해, 고려, 조선 등이다. 그는 단군조선을 전설로 평가하고, 단군이 평양에 근거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기자 세력 역시 종족의 측면에서 <조선>과 연관되지만, 근거지가 한반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엄밀하게 <조선>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고 평했다. 그리고 위만이 한반도 북부에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

며, 같은 시기 한반도 남부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이주한 세력이 원주민을 제압해 삼한을 통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외부에서 이주한 세력이 <조선>의 역사를 주도하고, 한반도 원주민을 <조선>의 역사에서 피지배 세력으로 설정한 것이다.

쓰네야는 『일본서기』 등에 근거해 임나와 임나부(任那部: 日本部·大倭部)의 실재를 구체화하고 일본과 삼국의 대외관계를 해석했다. 일본이 신라와 가야의 성립·전개에 관여하고, 5세기 이후 백제의 통치를 유지시킨 것으로 서술했다. 일본이 임나로서 한반도에 영역을 가지고, 임나가 무너진 이후에는 백제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영락태왕(永樂太王)의 비문을 언급했다. 당시 일본 참모본부의 장교가 광개토왕비의 탁본을 가지고 귀국하면서 일본에서 『일본서기』 등에 근거해 비문이 해석되고, 특히 가야와 삼국에 관한 기사가 일본 중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었다.

이어서 쓰네야는 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지고 이후 신라와 고려에 의해 강역이 넓어져 조선에 이르러 팔도의 강역이 갖춰지며, 그것이 반도 개벽 이래 최대 판도라고 평했다. 그리고 19세기 조선과 청 사이에 간도, 녹도(鹿島), 요동(압록강 북쪽) 등과 관련해 영역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1712년 백두산 분수령의 정계비 설치와 1860년 청·러 조약에 의해 간도와 녹도는 조선의 영역이 아니며, 압록강 북쪽은 조선인이 청 영토로 건너가 마을을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간도, 녹도, 압록강 북쪽을 조선의 경외(境外)라고 서술하였다.

이상으로 <조선>의 판도 연혁에 대한 서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조선>의 역사가 8시기로 구분되는데, 형식적으로 근대 이전 역사서의 왕조·국가별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왕조와 국가의 변천을 종족 변천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단편적 사실을 배열해 체계화하는



점이다. 그를 반영해 쓰네야는 『조선개회사』에서 지리·인종·문화·외교편의 내용을 상호 연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 하나는 두 개의 전제가 설정된 점이다. 즉 <조선>의 판도가 한반도로 한정되는 한편, <조선>의 역사는 위만 이래 이주와 식민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신라 이후 당·원·명·청과 관계하면서 강역의 변천을 겪는다. 그렇게 설정된 전제에 기초해 <조선>의 판도 연혁이 서술됨으로써, <조선>의 역사와 종족에 대해 피지배와 외세 의존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쓰네야는 조선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면서 역사를 종족 간 흥망성쇠로 대치하고, <조선>에서 전개된 이주와 식민의 사실을 재구성하였다. 그를 통해 내면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타당성과 정통성을 도출하고, 현실적으로는 조선의 지리를 대상으로 개발과 침탈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 3. 청일전쟁 이후 식민론의 전개

1899년 6월 쓰네야는 일본으로 귀국해, 동년 9월 동경지학협회 예회에서 「조선종족담」을 연설했다.<sup>41</sup> 『조선개회사』 원고를 발췌해 발표한 것으로, 그는 <조선>의 역사를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정치세력과 국가의 지리 범위 즉 영역을 추정하며 그와 연관 있는 사실을 설명했다. 『조선개회사』 「지리」편과 비교하면 위만조선과 한사군 시기에 병립한 삼한을 분리시키고, 각 단계별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쓰네야가 ‘조선’, ‘삼한’ 등의 의미가 시기적으로 변천한다고 강조하며 패수, 임나 등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고 관련 사료와 연구서를 비판한 것이다. 그 예로 백제 영역과 관련해 『지나지지(支那地誌)』의 오류를

41 恒屋盛服, 「朝鮮種族談」 전3회, 『지학잡지』 11집 11호·12집 1-2호(1899-1900).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나지지』 15권상(만주부)의 사략 부분에 백제에 관한 기술이 있다. 백제가 처음에 대방(帶方)의 고지(故地)에 나라를 세워 [...] 요서에서 흥하고 요동과 마한을 지배했다고 쓰여 있다. 백제의 판도가 요서·요동에서 마한에 이르는 것처럼 기술된 것이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백제 시조인 온조가 북에 말갈이 있고 동에 낙랑이 있어 매우 곤란하다고 했다. 당시 낙랑이 강원도 춘천부로 후퇴하고, 말갈은 함경도 원산에서 평안도 평산과 강원도 철원에 흩어져 있으니 백제의 판도는 대동강 이북일 수 없다. 다만 온조가 고구려 주몽의 자식이므로 카이위안(開元)에 위치한 부여와 연결 지어 백제의 판도를 추정할 것이다.”<sup>42</sup>

이렇게 쓰네야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온조 기사를 인용하는 등 사료에 근거해 백제 영역에 대해 비판한 배경에는 임나 판도 문제가 있었다. 그는 일본이 5세기 백제에게 임나의 땅을 할양하고 부용국(附庸國)과 같이 대우하며 임나 멸망 이후에도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므로, 백제 영역은 대동강 이북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세기 임나 판도를 경상우도 전체, 경상좌도 중 밀양 이남, 충청도 황간·청산·옥천·청주·공주, 전라도 운봉·남원·구례·순천 등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했다. 임나가 일시적으로 강원도와 황해도 방면으로 군사를 보내 점령하지만 그것을 판도라고 할 수 없으며, 강원도 춘천을 임나 판도에 포함시킨 지도를 상상도(想像圖)라고 비판했다.<sup>43</sup>

사실 춘천과 임나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일본서기』 중 스사노오 노미코토(素盞雄尊) 기사 해석에 따른다.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고사기』와 『일본서기』 등 고전을 해석하는 국학이 성립하면서, 사서와 문학에 등장하는 지명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소시모리(曾尸茂梨)

42 恒屋盛服, 앞의 글(1899), 『지학잡지』 11집 11호, p. 751.

43 恒屋盛服, 앞의 책(1901), pp. 115~116.

였다. 19세기 소시모리의 위치에 대한 제설이 8개나 되었고, 그 중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주장이 가장 호응을 얻었다.<sup>44</sup> 요시다는 소시모리를 춘천의 우두산(牛頭山)으로 해석하고, 기원전 4세기 스사노오가 소시모리 즉 춘천으로 갔다고 추정했다. 그에 대해 쓰네야는 춘천 일대를 한사군(낙랑)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임나 판도에서 제외하는 한편, 낙랑이 무너진 이후 신라가 우두주(牛頭州)를 설치한 것에 근거해 소시모리를 우두산으로 해석하는 데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18년 소시모리 우두산 설에 따라 강원신사(江原神社)가 세워졌다.

쓰네야는 일견 사료 비판을 통해 <조선>의 영역 변화를 주장하지만, 그 배경에 <조선>의 역사를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견지한다. 삼국시대 이전의 <조선>을 중국사 변동과 연동해 이해하고, 삼국시대 이후의 <조선>은 일본 역사서와 자료에 근거해 파악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일본서기』에 근거해 임나를 이해하고 임나와 가라(加羅)를 동일시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쓰네야가 <조선>의 역사를 <조선>의 종족 변천과 연동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먼저, 일본은 여러 종족이 집합해 이루어진 나라이다. 종족의 본원(本源)에 대해 제설이 있지만, 일본 종족 중 휴가(日向)의 천손파와 이즈모(出雲)의 대국주(大國主) 파가 우세하다. 둘째, <조선>의 종족 중에 일본으로부터 식민한 이즈모파와 만주지역에서 이주한 부여족이 우세하다.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한대(漢代)에 걸쳐 한인종(漢人種)이 조선에 식민하지만, 부여족의 고구려에 의해 사라졌다. 그리고 이즈모파가 식민한 신라가 이후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므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우세한 종족이다. 셋째, 조선인과 일본인은 동일계통으

44 吉田東伍, 「古代半島諸國興廢概考」, 『史学会雜誌』 21号(1891), pp. 21~22; 吉田東伍, 『日韓古史斷』(富山房書店, 1893), pp. 34~35.

로 골격, 풍습, 언어, 문법 등이 비슷하다. 넷째, 천손파와 이즈모파 그리고 부여족 세 계통에 공통점이 있다. 그 예로 고유어 발음의 경우 끝소리에 N과 NG가 없다.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철기를 사용하고, 용장한 종족이다. 다섯째, 고려~조선시대 <조선>의 혈맥(血脈)이 문란해졌다. 외래 종족이 <조선>을 수십 차례 침략한 결과 혈맥이 정통하지 않고 풍속과 언어도 변천하며 인민의 덕의(德義)도 파괴되었다.<sup>45</sup>

쓰네야의 설명은 이른바 일선동조(日鮮同祖)와 일맥상통한다. 호시노 히사시(星野恒)가 국학과 고증학 방법론으로 『일본서기』 등 일본 역사서에 기초해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고, 일선동조를 주장했다.<sup>46</sup> 쓰네야 역시 일본이 복수의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주장을 수용했다. 그리고 일본사에 기초해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고, 언어와 문법 등의 유사성을 객관적 사실로 제시하며, 일본과 <조선>을 동일 계통 즉 동조라고 강조하는 한편 혈맥의 문란을 주장했다. 일본사 속으로 <조선>의 역사를 편입시키고, 혈맥의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역사적 당위를 강조하며 식민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조선 진출을 주장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사회는 세계정세에 대응해 공공연히 조선을 이익선(利益線)이라고 주장하며, 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제국이 각축하는 조선에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조선 지배의 타당성과 정통성을 도출하는 논리를 구축하려 했다. 그에 호응해 쓰네야도 일선동조를 전제로 일본 종족이 <조선>에 식민한 역사를 주장하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종족의 이동·대립·식민으로써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이미 서구 제국주

45 恒屋盛服, 앞의 글(1899), p. 755~756.

46 星野恒, 「本邦人種言語ニ付鄙考ヲ述テ世ノ真心愛國者ニ質ス」, 『史学会雑誌』 11號(1890); 重野安繹·久米邦武·星野恒 編, 『稿本國史眼』 전7권(大成館, 1890).

의가 개발한 논리 중 하나였다.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은 종족의 성격과 이동 등에 기초해 사회·국가의 역사를 설명하는 한편 각 종족에 대해 문명과 미개, 선진과 후진 등의 이미지를 결합시켰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문명국이 식민 사업을 통해 후진 민족을 교육하고 후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 제국은 식민지 건설을 고도로 성숙하고 강대한 사회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것은 특정 민족이 공간적으로 확대 증식하는 것으로 광대한 영역을 자신의 언어, 습관, 법률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sup>47</sup> 산업 자본과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식민 정책과 논리가 통합된 식민론 즉 식민주의가 제시된 것이다.

서구 식민론은 1890년대 구가 가쓰난(陸羯南), 후쿠모토 니치난(福本日南),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 등 일본 지식인에게 수용되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대만 통치,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 등에 당면하면서 그들은 서구의 식민론을 원용해 비문명국(非文明國)에 대한 차별적, 팽창주의적 측면을 수용하는 동시에 일본의 상황에 응용하여 제일등국(第一等國)으로서 일본이라는 인식을 도출했다. 일본의 식민주의와 주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긍정한 것이다.<sup>48</sup> 쓰네야의 경우 『조선개화사』를 통해 일본을 동양의 근대국가로 설정하고, 〈조선〉의 역사를 피지배 종족의 역사로 재구성하며 일본의 조선 식민을 주장했다.

47 에드워드 사이드(저), 박홍규(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2015).

48 柳瀬善治, 「明治大正期の植民地思想形成への一試論: ポール・ルロア=ポーリュウ受容の諸相」, 『三重大学日本語学文学』 13권(2002), pp. 67~93.

## V. 맺음말

---

쓰네야 세이후쿠는 『해외식민론』을 통해 19세기 세계정세에 대응해 일본 국외로 시장을 확장하고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민을 주장했다. 식민의 대상지역은 주로 일본열도에서 동남·서남향으로 태평양 항로를 통해 이어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그는 조선에 체재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선개회사』를 집필했고, 일본의 국익을 전제로 조선의 지리·인종·문화·역사 제 측면을 규정했다.

특히 「지리」 편에서 쓰네야는 조선을 일본의 개발 대상지로 설정하고, 천연적으로 조선에 내재한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지리의 서술에서 산업별 자원과 수륙 교통의 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역사지리의 서술에서 종족 변천을 중심으로 왕조와 국가의 변동, 〈조선〉의 판도 연혁을 서술했다. 역사를 종족 간 흥망성쇠로 대치하고, 〈조선〉에서 전개된 이주와 식민의 사실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를 통해 〈조선〉의 종족과 역사에 대해 피지배와 외세 의존이라는 이미지를 구체화하며 내면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타당성과 정통성을 도출하고, 조선을 대상으로 개발과 침탈을 강화하려 했다. 쓰네야는 일본(사) 중심의 관점에서 〈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일본사 속으로 〈조선〉의 역사를 편입시킨다. 그리고 혈맥의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역사적 당위를 강조하며 식민의 역사를 명분으로 일본의 조선 진출을 주장했다.

19세기 후반 일본사회는 세계정세에 대응해 공공연히 조선을 이익선(利益線)이라고 주장하며, 조선 지배를 긍정하는 논리를 구축하려 했다. 그에 호응해 쓰네야는 일선동조를 전제로 일본 종족이 〈조선〉에 식민한 역사를

주장하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했다. 종족의 식민 역사를 강조하며, 조선에 대한 지리적 지배를 긍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쓰네야는 식민이라는 용어를 통해 단순히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민이 식민주의(colonialism)와 연관된 용어로 바뀐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青華山人(지), 近藤真鋤(역), 『朝鮮八域誌』. 東京: 日就社, 1881.
- 恒屋盛服, 『海外殖民論』. 東京: 博聞社, 1891.
- \_\_\_\_\_, 「メキシコ國烈翁鐵山紀行」. 『東京地學協會報告』 14년 8·9호, 1893.
- \_\_\_\_\_, 「墨西哥國探檢話」 전2회. 『東京地學協會報告』 14년 10-11호, 1893.
- \_\_\_\_\_, 「朝鮮半島殖民ノ必要」. 『殖民協會報告』 51호, 1897.
- \_\_\_\_\_, 「韓國二於ケル日本人」. 『殖民時報』 71호, 1899.
- \_\_\_\_\_, 「朝鮮殖民問題ノ性質」. 『殖民時報』 74호, 1900.
- \_\_\_\_\_, 「朝鮮種族談」 전3회. 『地學雜誌』, 11집 11호·12집 1-2호, 1899~1900.
- \_\_\_\_\_, 『朝鮮開化史』. 東京: 博文館, 1901.
- 星野恒, 「本邦人種言語ニ付鄙考ヲ述テ世ノ真心愛國者ニ質ス」. 『史学会雜誌』 11號, 1890.
- 重野安繹·久米邦武·星野恒 編, 『稿本國史眼』 전7권. 東京: 大成館, 1890.
- 榊時敏 編, 『福島県名士列伝: 一名·衆議院議員候補者略伝 前編』. 福島: 福島活版舎, 1890.
- 吉田東伍, 「古代半島諸國興廢概考」. 『史学会雜誌』 21号, 1891.
- \_\_\_\_\_, 『日韓古史斷』. 東京: 富山房書店, 1893.
- 參謀本部編纂課 譯輯, 『各国貨幣度量訳字例』. 參謀本部, 1891.
- 金田樞太郎, 「人事地理學考」. 『地學雜誌』 7집 82권, 1895.
- \_\_\_\_\_, 「人事地理學考(承前)」. 『地學雜誌』 7집 83권, 1896.
- \_\_\_\_\_, 「人事地理學考(第八十三卷の續)」. 『地學雜誌』 8집 86권, 1896.
- 菊池謙讓, 『朝鮮王国』. 東京: 民友社, 1896.
- 坪谷善四郎, 「國民의 膨脹 移民」. 『太陽』 7-14, 1901.
- 新聞集成明治編年史編纂會 編, 『新聞集成明治編年史』. 東京: 林泉社, 1936.
- 大植四郎 編, 『國民過去帳 明治之卷』. 大阪: 尚古房, 1935.
- 東亞同文會內對支功勞者傳記編贊會 編, 『對支回顧錄』 下卷. 東京: 對支功勞者傳記編贊會, 1936.
- 黑竜會 編, 『東亞先覺志士記傳』 下卷. 東京: 黑竜會出版部, 1936.



## 2. 단행본

에드워드 사이드(저), 박홍규(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2015.  
유본예(저), 장지연(역해), 『한경지략: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풍속』. 경기: 아카넷, 2020.

角山幸洋, 『榎本武揚とメキシコ殖民移住』. 東京: 同文館出版, 1986.  
児玉正昭, 『『殖民協會報告』解説・総目次・索引』. 東京: 不二出版, 1987.  
淺田喬二, 『日本植民地研究史論』. 東京: 未來社, 1990.  
阪田安雄 監修, 『日系移民資料集 北米編』全18卷. 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 1991.  
上野久, 『メキシコ榎本殖民: 榎本武揚の理想と現実』. 東京: 中央公論社, 1994.  
神繁司, 『移民ヒブリオグラフィー: 書誌でみる北米移民研究』. 東京: クロスカル  
チャー出版, 2011.

## 3. 논문

김성현, 「19세기 말 동경지학협회의 활동과 조선 지리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박양신,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동북아역사논총』 65, 2019, 273~311쪽.  
조동걸, 「식민사학의 성립과 심화」. 『한민족독립운동사』 5권, 국사편찬위원회, 1989, [http://db.history.go.kr/id/hdsr\\_005\\_0030\\_0050\\_0010](http://db.history.go.kr/id/hdsr_005_0030_0050_0010)쪽.  
최혜주, 「메이지(明治)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日鮮同祖論」.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2003, 161~203쪽.  
\_\_\_\_\_, 「일본 殖民協會의 식민 활동과 해외이주론」. 『승실사학』 30, 2013, 173~213쪽.

福島新吾, 「明治期における植民主義の形成」. 『思想』 511, 1967, pp. 85~98.  
阿部洋 외, 「東アジアの教育近代化に果たした日本人の役割: お雇い日本人教習と中国・朝鮮」. 『日本比較教育学会紀要』 1982卷 8号, 1982, pp. 51~58.  
稲葉継雄, 「京城学堂について: 旧韓末「日語学校」の一事例」. 『日本の教育史学』 29卷, 1986, pp. 76~94.  
西川潤, 「フランス第三共和制の植民地政策: ルロワ ポーリューとジュール・フェ

- リイ」. 『社会 経済史学』 52卷 2号, 1986, pp. 222~243.
- 千葉功, 「満韓不可分論満韓交換論の形成と多角的同盟・協商網の模索」. 『史学雑誌』 105卷 7号, 1996, pp. 620~655.
- 柳瀬善治, 「明治大正期の植民地思想形成への一試論: ポール・ルロア = ポーリユー受容の諸相」. 『三重大学日本語学文学』 13권, 2002, pp. 67~93.
- 日比嘉高, 「移民の想像力: 渡米言説と文学テキストのビジョン」. 『JunCture』 1, 2010, pp. 48~63.

## 국문초록

본고에서 1890년대 식민론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의 활동과 저술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해외식민론』과 『조선개회사』를 중심으로 식민에 관한 저술의 변화를 고찰했다. 쓰네야는 『해외식민론』을 통해 19세기 세계정세에 대응해 국외로 시장을 확장하며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식민을 주장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체재하며,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선개회사』를 집필했다. 일본의 국익을 전제로 조선의 지리·인종·문화·역사 제 측면을 규정한 것이다. 그는 역사를 종족 간 흥망성쇠로 대치하고, <조선>에서 전개된 이주와 식민의 사실을 재구성했다. 그를 통해 <조선>의 종족과 역사에 대해 피지배와 외세 의존이라는 이미지를 구체화하며 내면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타당성과 정통성을 도출하고, 조선을 대상으로 개발과 침탈을 강화하려 했다. 19세기 후반 일본사회는 세계정세에 대응해 공공연히 조선을 이익선이라고 주장하며, 조선 지배를 긍정하는 논리를 구축하려 했다. 그에 호응해 쓰네야는 일선동조를 전제로 일본 종족이 <조선>에 식민한 역사를 주장하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식민이라는 용어를 통해 단순히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민이 식민주의(colonialism)와 연관된 용어로 바뀐 것이다.

투고일 2021. 12. 21.

심사일 2022. 4. 11.

게재 확정일 2022. 5. 3.

주제어(keyword)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 Tsuneya Seifuku), 해외식민론(Kaigai Syokuminron), 조선개회사(Chōsen Kaika-shi), 식민론(Colonization Discourse)

## Abstract

### Japanese Intellectual Seifuku Tuneya's Colonization Discours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Kim, Sung-hyun

In this article, I reconsider the activities and writings of Seifuku Tsuneya from a point of view of colonization discourse in the 1890s. Specifically, it considered the changes in the description of colonization based on Kaigai syokumin-ron and Joseon kaika-shi. Through Kaigai syokumin-ron Tsuneya insisted on expansion of Japanese market overseas in response to the world situation in the 19th century and overseas colonization to solve domestic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fter the Sino-Japanese War, he stayed in Joseon and wrote Joseon kaika-shi in consideration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It was intended to define aspects of Joseon's geography, race, culture, and history on the basis of Japan's national interests. Tsuneya replaces history with the rise and fall of the species, and reconstructs the facts of migration and colonization that developed in the Joseon. Through that, he sought to materialize the image of blood control and dependence on foreign powers for the ethnicity and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to derive the validity and legitimacy of Japan's domination of Joseon internally, and to strengthen development and invasion of Joseon. In the late 19th century, Japanese society openly claimed that Joseon was a profit line in response to the global situation and tried to establish a logic that affirms the rule of Joseon. In response, Tsuneya claimed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under the premise of Japanese Shares Ancestors with Koreans, justifying Japan's control of Joseon. In the process, he explains through the term colonialization that the Japanese did not simply migrate to Joseon, but historically dominated it. The term colonialization was changed to a term related to colonialism.